



국내외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IMT-2000관련 장비 등 산업생산 증가 예상

2002년 산업별 동향 및 전망

올해 우리나라는 위성방송개시, 월드컵 특수, 새로운 디지털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반도체 및 일반전자부품을 비롯하여 디지털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내수가 크게 회복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2년 산업별 경기 전망' 자료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국내외적으로 산업생산 증가세 반전 전망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생산은 내수회복과 더불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극심한 어려움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컴퓨터, 일반전자부품 등의 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발전될 것이며, 특히 공작기계 등의 대미,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반기계의 올해 수출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기기의 수출은 올해에도 두자리 수 증가가 예상되며, 월드컵 특수, 디지털 방송 확대 실시, 디지털 제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가전 수출도 5.9%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회복 및 통계적 반등으로 컴퓨터, 반도체, 일반전자 부품 등의 수출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내수부문에 있어서도 위성방송 개시, 월드컵 특수, 새로운 디지털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일반전자부품 등도 회복될 전망이며, 일반기계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에

〈표〉 2002년 산업별 경기 전망

	2001		200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일반기계	△	△	△	▲	▲	↑	▲	↑
가전	▽	↓	▲	△	▲	▲	▲	▲
반도체	↓↓	↓↓	△	▽	△	↑	△	△
통신기기	↑	↑	↑	↑	↑	↑	↑	↑
컴퓨터	▽	↓	△	△	△	△	△	△
일반전자부품	▼	↓	△	△	▲	▲	△	△

주: 1) 금액기준

2) △(▽): 전년 동기비 0~5% 증가(감소), ▲(▼): 5~10% 증가(감소)

↑(↓): 10~20% 증가(감소), ↑↑(↓↓): 20% 이상 증가(감소)

따라 5.5%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일반기계산업은 수급구조면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견지할 것이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에 4.5%, 하반기에 6.5% 증가하여 연간 5.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에 기업들이 축소 내지는 연기했던 설비투자 보전과 신규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자제하고 보수적 투자관행이 정착될



〈표〉 2002년 산업별 경기 전망

	2002		주요 요인	
	생산	수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일반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설비투자 회복 • 공작기계, 건설기계의 대미, 대중국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사태로 중동 플랜트 수출 감소 •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마인드 저하
가 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특수 • 디지털가전제품의 가격하락 및 위성방송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영향으로 선진국 소비위축 및 경기회복 지연 • 개도국 저가제품 공급증가와 해외생산 증가 가속화
반도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반도체 업계의 구조조정 진전 • 통신기기 수요증가 지속 • 중국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 가격회복 지연으로 수익성 악화
통신기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기 국내업체의 상품이미지 개선 • IMF-2000서비스 상용화 • 무선인터넷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 후발국의 경쟁력 제고 • 유럽 등 선진국의 신규수요 미미
컴퓨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터블컴퓨터 수요 증가 •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 증가 • 고부가주변기기의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선진국 PC 수요 회복 속도 완만 • 수출시장 다변화 미비와 OEM생산 구조 • 중국업체와의 경쟁관계 심화
일반전자부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 등 LCD장착 수요 증가 • 디지털가전 및 통신기기 수요 증가 • 국산화 확대로 일부 품목 수입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중국 등의 저가물량 공급 증가 • 미국의 IT분야 회복 속도 완만

주 : 1) 모두 금액기준
 2) △(▽) : 전년 동기비 0~5% 증가(감소), ▲(▼) : 5~10% 증가(감소)
 ↑(↓) : 10~20% 증가(감소), ↑↑(↓↓) : 20% 이상 증가(감소)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작기계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기계

올해 가전산업은 월드컵 특수, 지상파 방송과 아울러 위성방송개시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 콤포형 복합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디지털 가전 가격하락 등에 힘입은 내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증가율은 디지털 가전의 경우에도 시장 접근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선진국 경기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5.5%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월드컵 특수, 세계 각국의 디지털 방송개시 등에 따른 디지털 가전 수요 확대, SD급 디지털 TV의 대유럽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이 5.9%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의 경우 디지털 TV,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의 수입 증가로 2001년보다 높은 6.7%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반도체

컴퓨터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등의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대만 등 일부 업체와 인피니온과의 합작 또는 하이닉스의 설비매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D램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4개 업체의 과점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및 수출은 각각 4.1% 및 4.8%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2003년 이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

올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2000년부터 소비자 관심을 끌며 확산되고 있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와 하반기 정도 제공될 IMT-2000 서비스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무선데이터 관련 기기, IMT-2000 관련 장비 수요와 함께 이동전화기(CDMA, GSM용), 시스템 등의 수출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다소 확대되어 전년 대비 13.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은 통신기기 수출의 65%에 해당하는 이동전화기와 함께 이동전화용 시스템, 그리고 초고속가입자망과 관련하여 각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ADSL이나 케이블모뎀 관련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컴퓨터

작년 컴퓨터산업 생산은 노트북PC, PDA 등의 포터블 컴퓨터부문과 DVD-ROM 드라이브, 고용량 HDD 등의 고부가 주변기기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이며, 내수는 가정부문과 기업부문의 수요 활성화보다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 요인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수출은 2.7% 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70~8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IT부문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국내업체들의 수출이 심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GB급 보조기억장치, 고해상도 대형 모니터 등에 대한 내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입은 6.9%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전자부품

올해에는 디지털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의 시장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관련 부품의 생산 및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4.3%,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CD 부문은 2001년 74억달러 수출에서 2002년 9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며, 특히 월드컵이 열리는 상반기에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일반전자부품업체는 중대형 업체와 소규모 업체로 양극화가 현저히 진행될 전망이다.